

구약논단

제17권 4호(통권 42집) 2011년 12월 31일

정 중호(계명대)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고대 한국의 별읍(別邑)과 소도(蘇塗) ……… 126
이 논문은 구약에 소개되는 도피성과 마한의 별읍과 소도를 비교하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므로 도피성에 관련된 논쟁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도피성이 정치권력보다 종교권력이 우위에 있었던 시대에 운영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도피성에는 소도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별읍이 제사 기간에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Chong, Joong Ho Cities of refuge in ancient Israel and a separate city(別邑) and Sodo(蘇塗) in ancient Korea …………… 126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고대 한국의 별읍(別邑)과 소도(蘇塗)

정중호 | 계명대

1. 서론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고대 중동의 역사와 종교를 비교하면서 연구한다. 그러나 역사와 종교는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은 고대 수메르 역사와 종교는 고대 동양의 역사와 종교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점이 많으며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를 연구하고 동시에 고대 한국의 역사와 종교를 연구하여 다중 학문분야에 공히 공헌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제 간 연구이면서 동시에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한국을 아우르는 지역 간 연구이기도 하다.

구약에는 48개의 레위성이 분포되어 있고 그 가운데 6성읍이 도피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피성을 보면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과 유다 지파의 헤브론 등이며,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의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등이었다(수 20: 8-9).

도피성의 정체와 역할에 대한 구약의 본문을 보면 출 21: 12-14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소'로 나타나며,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의 숫자가 6개로 확대된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하는 성으로 나타나고 이주자도 피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제사장 신학적인 관점에서 땅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를 포함시킨 것이다. 신명기(4: 41-43; 19: 1-13)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 세 개의 이름이 나타나고, 수 20-21장에서는 6개의 성읍 이름이 모두 나타난다.¹⁾ 이외에 대상 6: 57, 67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도피성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은 왕상 1: 50-53, 2: 28-34, 왕하 11: 13-15, 느 6: 10-13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시편에도 관련된 본문들이 있다(시 15: 1; 17: 8; 27: 5; 57: 1; 59: 16-17; 61: 4; 144: 2).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피난처의 역할이다. 도피성에서 무조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재판에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그들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호를 받는 살인자라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대체사장이 죽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도피성은 레위성 가운데 구분된 성읍인데 목초지(מִגְרָשׁ מִגְרָשׁ)가 성읍 주위에 둘러져 있어 제물을 목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난처가 고대 삼한 시대의 별읍(別邑)과 소도(蘇塗)라는 형태이다. 별읍과 소도는 진수(陳壽)(233-297년)에 의해 찬술된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한전(韓傳)에 최초로 나타나는데 성역(聖域)으로 범죄자가 피난할 수 있는 곳이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소도가 별읍(別邑)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보아 제물을 방목하거나 목양할 수 있는 숲이나 임야가 주위에 있는 성역(聖域)임을 알 수 있다.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한전(韓傳)에 기록된 소도와 관련된 본문은 아래와 같다;²⁾

A.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飲酒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 低昂 手低足相應 節奏有似鐺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1) 김 덕중, "구약 성경의 도피성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신학」 8 (2006), 399-417쪽.

2) 소도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後漢書」 東夷傳, 「晉書」 四夷傳, 「翰苑」 馬韓傳, 「通典」 邊防門東夷傳에 재정리 되어 있다.

(번역)

- A. 항상 5월에 종자를 심는 일이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무리지어 노래하며 춤추고 술 마시면서 밤낮을 쉬지 않는다. 그 춤은 수십 인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며 땅을 밟고 뛰기도 하는데, 손과 발이 서로 맞아 절진하는 모습이 태무와 비슷하다. 10월에 농사일이 끝났을 경우에도 역시 다시 이와 같이 한다.

B-1.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 2.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번역)

- B-1. 귀신을 믿어 국읍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명칭을 천군이라 한다.
- 2. 또 각국은 각각 별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명칭을 소도라 하는데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걸었다.

C-1. 事鬼神 諸亡逃之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 2.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번역)

- C-1. 귀신에 제사지내는데 그 가운데로 범죄자들이 도망하여 들어가면 모두 사람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 2. 소도를 세운 뜻은 부도와 유사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여 행하는 바가 다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약에 나타나는 도피성과 마한의 별읍과 소도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도피성에 관련된 논쟁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도피성은 48개의 레위성 가운데 구분된 6성읍이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6개의 도피성이 왜 설치되었으며 언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쟁점들을 소도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해결의 단서를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신성한 성역으로서의 제단과 도피성의 연관성을 별읍과 소도를 분석하면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소도로 피신한 사람의 정체와 도피성과 소도로 피신한 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히 연구할 것이다. 또한 도피성과 별읍의 경제적 기능도 덧붙여 살펴볼 것이다.

2. 도피성과 소도와 천군(天君)

최근에 바메쉬(Pamela Barmesh)는 그의 저서에서 피난처를 (1) 정치적인 이유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도니아와 요압이 피신했던 제단이나 성소(왕상 1: 50-53; 2: 28-34)와 (2) 우발적인 살인자의 피난처인 도피성을 구분하였다.³⁾ 그리고 계약법전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바메쉬(Pamela Barmesh)는 출 21장 12-14절을 해석하면서 13절의 ‘성소’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인 마콰ם(מִקְדָּשׁ)은 도피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14절의 제단(מִזְבֵּחַ)과 연결시켜 동일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14절은 고의적인 살인자일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보았다. 심지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제단에서도 끌어내어야 한다는 뜻으로 제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편 스테커트(Jeffrey Stackert)는 출 21장 12-14절과 신 19장 1-13절을 비교하면서 제단에 피신했던 것이 도피성에 피신하는 것으로 변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의의 중앙집중화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⁴⁾ 즉, 중앙 성소의 제단에 도달하기 전에 우발적 살인자가 ‘피의 구속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즉, 제단이나 거룩한 성소에서 세속적인 도시로 변천된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성역으로서의 제단이 우선이며 도피성이 나중에 설치되었다는 점은 수궁이

3) Pamela Barmesh, *Homicide in the Biblical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71-93쪽.

4) Jeffrey Stackert “Why does Deuteronomy Legislate Cities of Refuge? Asylum in the Covenant Collection (Exodus 21:12-14) and Deuteronomy (19:1-13),” *JBL* 125 (2006), 27-30쪽.

가지만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제의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도피성이 설치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왕권이 강화되었고 법치주의가 실행되었던 시대에 도피성이 존재하기 힘들며,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⁵⁾

박인펠트(Moshe Weinfeld)도 이러한 점을 주장하였는데 제단과 성소가 도피성 안에 있다는 주장이다.⁶⁾ 그리고 도피성이 세속적인 도시라는 주장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도피성 가운데 헤브론은 제사장 성읍이었으며(수 21: 13) 세겜에도 성소가 있었다(수 24: 1, 25; 사 9:4, 27). 따라서 당연히 헤브론과 세겜에는 성소가 있었으며 성소가 중앙에 있는 도피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죄인이 피신했다는 별읍과 소도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별읍과 소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한전(韓傳)에는 별읍과 소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당시 삼한은 각각 소국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마한의 경우 54 소국이 있었다. 각 소국은 다수의 읍락군으로 형성되며 그 중심에는 국읍(國邑)이 있었다. 국읍은 소국의 중심지로 대읍락을 가리킨다.⁷⁾ 그리고 국읍 옆에는 별읍이 있었다고 하며 소도가 있었다고 한다.

별읍은 5월과 10월에 농경제의가 열리는 곳이고, 소도에는 북과 방울을 매단 대목(大木)이 세워져 있었다. 바로 여기서 제의가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천군(天君)이 관장하는 소도에서는 범죄자가 피난할 수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별읍과 소도가 각각 별개의 것이었느냐 아니면 별읍 안에 소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소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서 영대는 ‘숫터설’을 주장하였는데 소도의 ‘소’의 의미를 고대국어의 ‘숫’ 내지 ‘소술’의 음차이며 ‘터’의 음차인 도(途)가 붙여진 것으로 보았다.⁸⁾ 한편 허 회숙은 소도의 의미를 “부활갱생의 길”로 해석하였다.⁹⁾ 그리고 송 화섭은 소도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의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송 화섭은 소도를 불교의식과 흡사

한 종교의례로 보았다.¹⁰⁾ 그러나 김 정배는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고 소도가 있는 별읍에 도피한 자를 붙잡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별읍 안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소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¹¹⁾ 보다 더 설득력있는 주장은 별읍 안에 소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소도는 큰 나무를 중심으로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동안 춤추는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곳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이요 제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대마도에도 비슷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 도망자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신성한 제사 장소인 소도를 포함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²⁾

천군(天君)은 누구인가? 천군의 신분을 무(巫 Shaman)로 보기도 하지만¹³⁾ 제사장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¹⁴⁾ 초기의 천군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통치자이기도 하였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역 가운데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종교적인 권위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후기에는 제정이 분리되었는데 천군이 정치적 통치자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소도라는 성역을 관장할 만한 권력이 있었다.

삼한 시대의 종교 상황을 살펴보면 농경신앙이며 자연신을 숭배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천군이 섬기는 신은 천신(天神)으로 지역의 신보다 상위의 신이었다. 천신은 국가의 수호신으로 적합한 신이었다. 천신은 최고신이었으며 유일신이었고 인격신이었다.¹⁵⁾ 천군이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천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결국 여러 지역을 종교적으로 통일 시키고 장래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10) 송 화섭, “마한 소도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7집 (1994), 247쪽.

11) 김 정배, “소도의 정치사적 의미,” 『역사학보』 79집 (1978), 5-20쪽.

12) 조 법중, “신라사원노비의 기원문제에 관한 일고찰,” 『史叢』 32집 (1987), 25쪽. 소도와 비슷한 형태로 대마도의 卒土를 예로 들었다. 대마도에는 개울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는 神社가 있는 聖地요, 서쪽에는 주거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 현해, “삼한의 국읍과 그 성장에 대하여,” 『역사학보』 69권 (1976), 13쪽.

13) 김 태곤, “소도의 종교민속학적 조명,” 『마한·백제문화』 12집 (1990), 171-174쪽.

14) 김 정배, “소도의 정치사적 의미,” 『백산학보』 26호 (1981), 20-21쪽.

15) 송 화섭, 뒷글, 256-257쪽.

5) Menahem Haran, “Studies in the account of the levitical cities: I. Preliminary Considerations,” *JBL* 80 (1961) 53쪽.

6) Moshe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2nd ed.; Jerusalem: Magnes; Minneapolis: Fortress, 2000), 97-132쪽.

7) 이 현해, 『삼한사회 형성 과정 연구』 (일조각, 1984), 105쪽.

8) 서 영대, “韓國古代神觀念의 社會的意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67쪽.

9) 허 회숙, “소도에 관한 연구,” 『경희사학』 3집 (1972), 11쪽.

3. 소도와 별읍을 통해 본 도피성의 역사성과 시대적 배경

소도와 별읍에 관한 자료의 장점은 이 자료가 삼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진수(陳壽)(233-297년)에 의해 찬술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도와 별읍의 역사성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도피성이 포함된 레위성에 관한 구약의 본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역사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피성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문학적 창작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만일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도피성의 설치 연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도피성이 설치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소도는 백제와 신라가 국가체제로 형성되기 이전인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 시대에 있었던 제장(祭場)이었다. 이 삼한 시대는 주전 3세기에서 주후 3세기에 걸친 약 600여년의 기간이었으며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변화되는 시대로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난 시대였다. 이 시대에는 읍락사회에서 국읍세력의 주도하에 소국사회로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되며 계층구분에 따라 신분변화가 일어나고 경제적 빈부 차이가 일어나는 시대였다. 또한 혈연적인 씨족사회에서 부족공동체사회로 발전하면서 소국이 형성되는 시대였다. 씨족사회는 평등한 원시공동체였으며 자발적 노동력집단이 존재한 고인돌사회라 할 수 있다.¹⁶⁾ 그런데 부족사회와 국가로 발전하면서 공동체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판도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¹⁷⁾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소국(小國)이라는 용어는 ‘작은 국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상은 국가의 규모가 아니라 군장사회(君長社會, Chiefdom)의 규모로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베이커(P. T. Baker)와 샌더스(W. T. Sanders)에 의하면 부족의 최고 인원은 5,000-6,000명 정도이고 그 다음 군장사회는 10,000-12,000명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¹⁸⁾ 위

지동이전 한전에 의하면 삼한은 15-20만호로 인구가 75-100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마한과 진한과 변한의 각 소국의 인구는 2,000호 즉, 1만 여명의 규모였으므로 군장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¹⁹⁾ 국읍이라는 것도 국가의 도시가 아니라 군장사회의 큰 읍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한은 각각 소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마한의 경우 10여만 호(5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54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소국은 다수의 읍락군으로 형성되며 그 중심은 국읍이 있었다. 국읍에는 주수(主帥)라는 정치적 통솔자가 있었지만 읍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國邑雖有 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국읍에는 주수가 있으나 읍락이 잡거하여 능히 서로 잘 제어하지 못한다).²⁰⁾ 오히려 제사장인 천군이 각 읍락의 집단들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각각의 소국을 성립시켰다.²¹⁾ 즉, 정치권력보다 종교적 권력이 우위였던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치권과 종교권의 분리 현상이다. 이전에는 즉, 고조선과 같은 고대 사회에는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통치자가 제사장 역할을 겸했다. 그리고 삼한시대에도 마한의 경우 세형동검문화기(細形銅劍文化期)인 전기(주전 300-0년)에는 천군이 제사장과 통치자를 겸하기도 하였다.²²⁾ 즉, 천군이 제정(祭政)을 관장하는 군장사회이며 소국사회라 할 수 있다.²³⁾ 그러나 후기(0-300년)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났다.²⁴⁾

비록 제정(祭政)이 분리되었으나 정치권력자인 주수의 통치력은 미약하여 읍락집단을 정치적으로 통합하지 못하였고 천군이 주관하는 제천의식에 의존하여 지배하였다.²⁵⁾ 종교적으로 설명한다면 ‘제귀신(祭鬼神)’ 혹은 ‘사귀신(事鬼神)’에서 나타나는 ‘귀신’이라는 용어는 각 읍락에서 섬겼던 잡신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천신(天神)’은 최고신으로서 여러 신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었다. 따라서 천군이 주재하는 천제(天祭)는 각 읍락의 대표자들을 가장 큰 도시인 국

16) 박 희현, “한국 고인돌문화에 대한 한 고찰 - 그 상한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46집 (1984), 21-24쪽.

17) 국가 발전 단계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반왕권적 저항들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바람; 이 희학,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일어난 반왕권적 저항들 -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갖는 역사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10집 (2001), 43-64쪽.

18) Baker, P. T. and Sanders, W. T., “Demographic Studie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 (1972), 163쪽.

19) 김 정배, 『윗글』, 8-9쪽.

20) 『三國志』, 魏志東夷傳, 韓傳

21) 이 현해, 『윗글』(1976), 3-8쪽.

22) 김 정배, 『윗글』, 18-19쪽.

23) 김 정배, “삼한사회의 ‘국’의 해석문제,” 『한국사연구』 26호 (1979), 2-6쪽.

24) 송 화섭, 『윗글』, 249쪽, 각주 25; 최 몽룡,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64쪽.

25) 송 화섭, 『윗글』, 249쪽.

읍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읍에는 교역이 활발해 졌으며 이러한 여러 활동을 통해 국읍의 군장은 고대국가의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철기문화의 보급으로 국읍의 정치세력이 강화되면서 천군의 종교적 세력이 약화되는 일이 일어났다.²⁶⁾ 그리고 정치세력인 왕권이 강화되면서 천군은 오히려 그 세력이 약화되어 버렸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었던 천군이 관장하는 별읍과 소도에서는 범죄자가 피난할 수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소도가 있는 별읍은 정치적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곳으로 도망하면 잡아내지 못하였다. 별읍은 군장사회에서 독자적인 통치질서를 가진 지역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 권력이 구분되는 제정분리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천군의 권력이 정치적 지도자인 주수보다 우위에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군장인 주수와 제사장인 천군 사이에 모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⁷⁾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도피성의 역사성과 그 시대적 배경을 가늠하려고 한다. 즉, 아직 국가체제가 굳건하게 자리잡지 않았고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으며,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분리가 시작되었으나 종교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할 수 있는 시기에 도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에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레위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단계에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솔로몬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성소에 피신한 것은 고대의 일이고 도피성이 설치된 것은 요시아 왕 때라고 주장하였다.²⁸⁾ 왜냐하면 성소의 중앙집권화로 인해 지방 성전이 파괴되면서 피난처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도피성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시아왕은 요단강 동편까지 통치한 적이 없었으며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설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

하지 않다. 니콜스키(N. M. Nicolsky)²⁹⁾와 맥키팅(Henry McKeating)도 주전 7세기에 도피성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³⁰⁾ 왜냐하면 주전 7세기에 요단강 동편을 통치한 유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드보(Roland de Vaux)는 도피성 설치 시대를 솔로몬 왕 때라 주장하였으며,³¹⁾ 밀그롬(Jacob Milgrom)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다. 밀그롬(Jacob Milgrom)은 범죄자가 제단으로 피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제단의 성역(聖域)을 솔로몬이 깨뜨려 버리고 대신 6개의 도피성으로 피난처를 대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²⁾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더 이상 제단이 있었던 성역이 제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왕권의 강화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왕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적인 도피성을 새롭게 설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도피성과 같은 성역(聖域)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요압의 경우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요압 장군이 도피하여 성막 안에 있는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건지려 했지만 왕인 솔로몬은 그를 끌어내어 처형해 버렸다(왕상 2: 28-34). 성역(聖域)으로 구별된 성막이 더 이상 범법자를 보호할 능력이 사라진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종교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왕권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치외법권적인 성역인 도피성이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소도의 경우를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종교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있었을 때 도피성이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신장되고 국가가 형성되며 왕권이 종교권력 보다 우위에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도피성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도피성이 설치되고 운영된 시기는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도피성의 성립과 운영시기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소도의 경우를 참작해 볼 때 가장 설득력있는 것은 왕권이 충분히 강화되기 이전인 사울 시대 이전이다. 왜냐하면 사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무엘이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을 모두 행사하는 군장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

26) 이 현해, *윗글*(1976), 18-19, 26쪽.

27) 김 정배, *윗글*(1978), 20-24쪽.

28) Julius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preface by W. Robertson Smith, with a foreword by Douglas A. Knight, 1885. Reprint, Atlanta: Scholars Press, 1994), 33, 162, 375쪽.

29) N. M. Nicolsky, "Das Asylrecht in Israel," *ZAW* 48 (1930), 156-157쪽.

30) Henry McKeating, "The Development of the Law on Homicide in Ancient Israel," *VT* 25 (1975), 64-66쪽.

31)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New York: McGraw-Hill, 1961), 162-163쪽.

32)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508쪽.

로 등장했을 때에도 여전히 제사장인 사무엘의 위세는 등등하였고 사무엘은 왕을 교체할 수 있는 위력을 과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윗 시대에는 다소 왕권이 강화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기에 성역(聖域)인 도피성은 약화된 상태로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4. 도피성과 소도로 피신한 사람들의 정체

도피성이 보호하는 범법자는 우발적인 살인자이다. 도피성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다. 제사장 신학에 의하면 만일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의 구속자'의 손에 의해 죽게 되면 또 다른 억울한 피가 땅에 흘러 땅이 오염되면서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도 도피성이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한다.³³⁾

그러나 소도의 경우 소도에 피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다.

손 진태는 C-1 가운데 '호작적(好作賊)'이라는 구절을 소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무사의 역할로 보았다.³⁴⁾ 과연 소도로 피신한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모두 무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 이러한 생각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모두가 무사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호작적(好作賊)'은 도둑질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인 살인, 상해, 도적 등의 행위를 모두 일컫는 용어로 볼 수 있다.³⁵⁾ 따라서 소도로 피신한 사람들은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여러 학자들이 일반적인 범법자로 이들을 보면서 사회가 인정할 만큼 소도에서 어떤 형태이든 노역이나 잡역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조 범중은 소도로 피신한 사람들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범죄자를 징계한다는 의미로 어느 정도 중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보았다. 피신한 사람들은 토지로부터 유리되었고 공동체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된 존재였기에 노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³⁶⁾ 그래서 소도에 피신한 사람들의 역할을 볼 때 이들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사원(寺院)의 노비가 된 것으로 보았다.³⁷⁾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도는 부분적으로 교도소나 감호소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할 때 소도의 권위가 인정받고 그 권위가 지켜졌을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를 소도가 받아들인다면 소도는 사회적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란시키는 장소가 되며 소도와 천군의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피성의 경우 피신한 사람은 고의적 살인자인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자인지를 판가름하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재판 장소는 도피성 바깥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진행되었다(민 35: 25). 즉,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참여하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단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본성읍 장로들이 판단하여 고의적인 살인자일 경우 도피성에서 잡아가다 보복자의 손에 넘겼다(신 19: 11-13). 이러한 재판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발적 살인자만 보호한다는 도피성 역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자라 하더라도 도피성 바깥으로는 나갈 수는 없었다. 즉, 어느 정도 행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렌트 버틀러(T. C. Butler)는 레위성을 "도피처인 동시에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³⁸⁾

혹시 소도에서는 이와 같은 재판이 있었을까? C-2를 보면 "소도를 세운 뜻은 부도와 유사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여 행하는 바가 다름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의 '선'은 일상적인 관습을 가리키며, '악'은 범죄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천군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군은 선악을 판정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신의 판정으로 여겨졌으며 형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죄를 용서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부여의 영고에서도 제천의식이 거행될 때 죄인들에게 사면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日迎鼓 於時斷刑獄 解囚徒).³⁹⁾ 영고와 유사한 제천의식이 거행되는 소도에서도 어느 정도 사면의 정신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33) 정 중호, 「민수기 II」 (한글출판사, 2008), 416-417쪽.

34) 손 진태, "소도고,"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34쪽.

35) 송 화섭, "마한 소도의 구조와 기능," 「한국종교」 제17집(1992), 46쪽.

36) 조 범중, "신라사원노비의 기원문제에 관한 일고찰," 「사총」 32권(1987), 27쪽.

37) 조 범중, "한국 고대 노비의 발생 및 존재양태에 대한 고찰," 「백제문화」 22권 (1992), 35쪽.

38) T. C. Butler, *Joshua* (WBC; Waco: Word Books, 1983) 216쪽.

39) 「三國志」, 魏志東夷傳, 夫餘傳.

또 “부도와 유사하며”에서 ‘부도’란 불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계율을 강조하는 불교의 한 면을 가리킬 수도 있다. 즉, 소도에서도 불교와 같이 사람들을 교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도에서 천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공동체적 생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太白逸史」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⁰⁾

고대 중동에서는 살인자도 성역으로 도피할 수 있었으며 성역에서 보호를 받았다.⁴¹⁾ 왜냐하면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였다. 고대에는 ‘피의 복수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피살자의 친족이 반드시 살인자를 찾아 죽여야 한다는 법이다. 이러한 관습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이름으로 살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고대 중동에서는 피난처(asylum)를 만든 것이다.

소도에는 어떤 범죄자든 피신한 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보전하기 힘든 범법자나, 복수가 두려운 보복자, 그리고 무거운 형벌이 두려운 범법자 등이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도에서는 사면정신과 교화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도로 피신했던 것이다. 그리고 억울하게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도 소도로 피신하여 신의 판단, 즉, 천군의 재판을 기다렸을 것이다.

구약에는 도피성에서 도피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고향과 가족을 그리며 도피성에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피신한 사람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밖에 나가서 “피의 구속자(복수자)”에 의해 죽으면 또 다른 억울한 피가 흘러 공동체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약의 도피성의 경우, 피신한 사람이 살아갈 장소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방도를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었다;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수 20: 4).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하루 이틀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장기간 도피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

40) 「太白逸史」, 三神五帝本紀
41) Jacob Milgrom, 甞글, 504.

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까지 마련해 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⁴²⁾ 김 지찬은 도피성을 ‘수용의 도시(city of admittance)’ 혹은 ‘영접의 도시(city of reception)’라 부를 것을 제안하면서 도피성이 무고한 도망자들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능동적 장소임을 강조하였다.⁴³⁾ 랍비 전승에 의하면 피신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직업훈련까지 시켜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다.⁴⁴⁾

그러면 소도에서는 피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였으며 그들은 무슨 역할을 감당했는가? 소도로 피신한 사람의 경우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무슨 일을 감당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소도로 피신한 사람들 가운데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도에 들어 온 범죄자는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 “...그 가운데로 범죄자들이 도망하여 들어가면 모두 사람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C-1). 그들은 가족과 토지로 부터 유리 당했으며 평생 중노동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노비나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생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도의 역할을 분담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제사준비를 하고 제의에 필요한 의기를 제작하는 역할도 분담했을 것으로 보인다.⁴⁵⁾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야 도피성에 있었던 우발적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해석한다.⁴⁶⁾ 비록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범죄이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도의 경우는 천군에 의해 사면이 있을 수 있고, 부여의 영고의 경우는 축제 기간에 사면이

42) 미쉬나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피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옷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피신자들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대제사장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Mish. Mak. 2:6).

43) 김 지찬, “한국 교회: 폭력의 원천인가, 도피성인가?” 「구약논단」 27집 (2008), 56쪽; R. D. Nelson, *Joshua*, OTL (Louisville: Westminster, 1997), 229쪽; M.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1981) 298쪽, 각주 1번.

44) E. J.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ITC; Grand Rapids: Eerdmans, 1983) 133쪽.

45) 조 법중, 甞글, 35쪽.

46) 정 중호, 甞글, 420-421쪽.

있었으며, 신라의 경우는 지도자의 취임 때 사면이 있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지만 새로운 대제사장의 취임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피성의 우발적인 살인자의 사면이 실제로는 새로운 대제사장의 취임 때 사면이 일어나는 것을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에 무게를 두어 해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⁴⁷⁾

또 다른 차이는 도피성의 경우 우발적인 살인자의 숫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소도의 경우 일반 범죄자가 피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도피성 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도피성과 소도의 사회 경제적 기능

별읍과 소도의 경우를 보면 씨앗을 뿌리는 5월과 추수를 마감하는 10월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도가 있었던 별읍에 와서 술도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춤을 추었다. 즉, 이러한 제사기간은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소통시키는 기회였고, 축제 분위기를 통해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조성할 수 있었다. 축제에서 추는 춤은 '택무(鐸舞)'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택무는 목탁을 손에 들고 춤추는 중국의 민간 춤으로서 '잡무(雜舞)'라 기록되어 있다.⁴⁸⁾

봄과 가을에 열리는 제사 기간은 물물교환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터가 열리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각 읍락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나 수공업제품과 농산물과 가축 등 잉여생산물이 별읍에서 거래되었다. 즉, 소도가 있었던 별읍은 경제적 교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국읍에서 거래되는 양이 더 많아졌고 상시로 거래되는 장터가 국읍에서 세워졌다. 그리고 기원전 1-2세기부터 마한을 포함한 삼한에서는 철을 화폐와 같이 사용하는 상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더욱 교역의 중심지가 국읍으로 옮겨졌다.⁴⁹⁾

그러면 도피성도 장터가 열리고 교역이 성행한 성읍이었는데? 이러한 면에 대해서 성정은 침묵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도피성에는 제단은 있었지만 도피

47) 이러한 가설은 또 다른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8) 이 두현, 「한국연극사」(민중서관, 1973), 8쪽.

49) 송 화섭, 윗글(1994), 73쪽.

성이 반드시 중요한 성소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벤엘(왕상 12: 27-33)과 실로(수 18: 1; 사 21: 19)와 높은 중요한 성소였지만 레위성도 아니었고 도피성도 아니었다. 물론 헤브론과 세겜에는 성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6개의 도피성이 모두 중요한 성소는 아니었다. 도피성을 포함한 레위성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실로와 높은 성소의 제사장들은 실로와 높은 거주하지 않았고 아나돗이라는 레위성(수 21: 18)에 거주하였다.⁵⁰⁾ 따라서 도피성이기 때문에 순례하러 오는 행렬은 없었으며 도피성에 종교적 이유로 인해 교역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역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약에 나타나는 도피성과 마한의 별읍과 소도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도피성에 관련된 논쟁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구약에는 48개의 레위성이 분포되어 있고 그 가운데 6성읍이 도피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피난처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난처가 고대 삼한 시대의 별읍(別邑)과 소도(蘇塗)라는 형태로 있었다. 별읍과 소도는 진수(陳壽)(233-297년)에 의해 찬술된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한전(韓傳)에 최초로 나타나는데 성역(聖域)으로 범죄자가 피난할 수 있는 곳이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국읍에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주수(主帥)가 있었고, 소도에서는 천군(天君)이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파종이 끝난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 제사를 드렸다.

소도를 통해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정치권력보다 종교권력이 우위에 있었던 시대에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신장되고 국가가 형성되며 국가체제가 성립될 때에는 더 이상 도피성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도피성이 설치되고 운영된 시기는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도

50) Menahem Haran, 윗글, 52쪽.

피성의 성립과 운영시기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소도의 경우를 참작해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왕권이 충분히 강화되기 이전인 서울 시대 이전으로 보여진다.

도피성에는 제사장 신학에 근거하여 재판을 거쳐 우발적 살인자만 보호하였지만, 소도에서는 억울한 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피신하였고, 소도는 질서를 바로잡고 교화하려는 목적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혹은 사면을 시켰다. 그리고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갈 수 있었지만 소도에서는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

소도에서 봄과 가을에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기간에는 별읍에 경제적 교역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피성을 교역의 중심지로 보기는 어렵다.

7. 참고문헌

- 김 덕중, "구약 성경의 도피성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신학」 8 (2006), 397-422쪽.
- 김 정배, "삼한사회의 '국'의 해석문제," 「한국사연구」 26호 (1979), 1-15쪽.
- _____, "소도의 정치사적 의미," 「역사학보」 79집 (1978), 1-27쪽.
- 김 지찬, "한국 교회: 폭력의 원천인가, 도피성인가?" 「구약논단」 27집 (2008), 51-69쪽
- 김 태근, "소도의 종교민속학적 조명," 「마한 백제문화」 12집 (1990), 157-184쪽.
- 박 희현, "한국 고인돌문화에 대한 한 고찰 - 그 상한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46집 (1984), 1-24쪽.
- 서 영대, "韓國 古代 神 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손 진태, "소도고,"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182-223쪽.
- 송 화섭, "마한 소도의 구조와 기능," 「한국종교」 제17집(1992), 7-92쪽.
- _____, "마한 소도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7집(1994), 241-274쪽.
- 이 두현, 「한국연극사」 (민중서관, 1973).
- 이 현혜, 「삼한사회 형성 과정 연구」 (일조각, 1984).
- _____, "삼한의 국읍과 그 성장에 대하여," 「역사학보」 69권 (1976), 1-39쪽.
- 이 희학,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일어난 반왕권적 저항들 -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갖는 역사신학적 의의," 「구약논단」 10집 (2001), 43-64쪽.
- 정 중호, 「민수기 II」 (프리칭아카데미, 2008).

- 조 범중, "신라사원노비의 기원문제에 관한 일고찰," 「史叢」32집 (1987), 1-31쪽.
- _____, "한국 고대 노비의 발생 및 존재양태에 대한 고찰," 「백제문화」 22권 (1992), 5-48쪽.
- 최 몽룡,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 허 회숙, "소도에 관한 연구," 「경희사학」 3집 (1972), 1-19쪽.
- Baker, P. T./Sanders, W. T., "Demographic Studie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 (1972), 151-178쪽.
- Barmash, Pamela., *Homicide in the Biblical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de Vaux, Roland, *Ancient Israel* (New York: McGraw-Hill, 1961), 162-163쪽.
- Hamlin, E. J., *Joshua: Inheriting the land* (ITC; Grand Rapids: Eerdmans, 1983).
- Haran, Menahem, "Studies in the account of the levitical cities: I. Preliminary Considerations," *JBL* 80 (1961), 45-54쪽.
- McKeating, Henry, "The Development of the Law on Homicide in Ancient Israel," *VT* 25 (1975), 46-68쪽.
- Milgrom, Jacob.,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Nelson, R. D., *Joshua*, OTL (Louisville: Westminster, 1997).
- Nicolosky, N. M., "Das Asylrecht in Israel." *ZAW* 48 (1930), 146-175쪽.
- Stackert, Jeffrey., "Why does Deuteronomy Legislate Cities of Refuge? Asylum in the Covenant Collection (Exodus 21:12-14) and Deuteronomy (19:1-13)," *JBL* 125 (2006), 23-49쪽.
- Weinfeld, Moshe.,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2nd ed.; Jerusalem: Magnes; Minneapolis: Fortress, 2000).
- Wellhausen, Julius.,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preface by W. Robertson mith, with a foreword by Douglas A. Knight. 1885. Reprint, Atlanta; Scholars Press, 1994).
- Woudstra, M. H.,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1981).

검색어
도피성
피난처
별읍
소도
천군

Cities of refuge in ancient Israel and a separate city(別邑) and Sodo(蘇塗) in ancient Korea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contention related to cities of refuge in the Old Testament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ities of refuge of ancient Israel and a *separate city*(別邑) and *Sodo*(蘇塗) in *Mahan*.

Six out of 48 levitical cities distributed in ancient Israel are divided as cities of refuge. The most important role of cities of refuge is to protect the murderer who killed accidentally.

Meanwhile, a *separate city*(別邑) and *Sodo*(蘇塗) was a similar shelter in ancient Korea. Records about a *separate city* and *Sodo* appears in *Hanjon*(韓傳), *Wijidongijun*(魏志東夷傳), *Three Kingdoms*(三國志) which was written by *Jinsoo*(陳壽, 233-297). A *separate city* and *Sodo* were sacred places where the criminals were protected.

Through studying *Sodo* we can conclude that cities of refuge were established in the discrete period of political power and religious authority. And after the strengthening of the political power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and state systems, cities of refuge were no longer maintained. Thus, cities of refuge were established before the power of throne was enhanced. Although controversial, the most probable period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ities of refuge is before the throne was strengthened sufficiently before the time of David.

Cities of refuge protected involuntary manslaughters after a trial based on priestly theology. However ordinary criminals escaped into *Sodo*. For the purpose of fixing the order and edification, *Sodo* imposed a punishment or a pardon by a criminal trial.

As for case of the cities of refuge, the involuntary slaughters were able to go out when the high priest died. However, in *Sodo*, they were not able to go out. In *Sodo*,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by offering a sacrifice to heavenly god, the economic trade was also carried out in *the separate city*. However, the cities of refuge were not economic centers.

Key Words

Cities of refuge
Asylum
Separate City
Sodo
Chungoon

- 투고일: 2011년 10월 1일
- 심사일: 2011년 10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6일

www.kci.go.kr